



아름다운 정치권을 꿈꾸는 책 전도사
신자 국회의원 김재윤(스테파노)

글 · 박이문(자유기고가) / 사진 · 지성진 (JIS 포토)

‘김재윤 의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MBC 방송국의 교양 TV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기적의 도서관 설립에 앞장 선 ‘책 전도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하고 한 얼굴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그가 바로 ‘김재윤’이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국회의원으로 다가왔다.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워낙 순수하고 순진한 이미지와 약간의 오락성(?) 있는 가벼움으로 각인되었던 터라 인터뷰를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정반대 이미지로 다가선 그 에 대하여 '생똥맛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차 의원회관에서 첫 대면을 하였을 때도 '순'자로 시작되는 느낌은 실제로도 유효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TV에선 느낄 수 없었던 차분함과 진지함이 은은히 배어나왔고, 이것이 순수의 이미지와 결합하고, 또 벽이 없는 그의 사상과 융합하여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

“권모술수에 능해야 정치를 잘한다는 생각, 물이 너무 깨끗하면 큰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정치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아름다워야 세상이 바뀝니다.”

행여 그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정치임을 적극적으로 밝힌다. 이미 출사표를 통하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 발전이 없으며, 정치 개혁 없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 김 의원에게는 맑고 깨끗한 정치로의 개혁이 최고의 목표였던 것이다.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 구조, 일류에 맞는 부속품을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 이 모든 문제는 독서를 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 전문가답게 김 의원은 책을 통하여 사회 구조의 개혁을 이루려고 한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토론 문화의 부재도 모두 독서를 통한 정신문화의 성숙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독서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발의하였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김 의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다.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 시위 주도자 중 한명이었던 친형

이 의문사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친형은 그에게 세상에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당시 우리나라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꼭 좋은 나라가 아닐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형에게서 다양성의 공존과 다른 각도에서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삶의 지향점이자 철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친형이었다. 충격이 컸던 만큼 그의 내면에 반대급부의 정치 참여의 부채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한때는 사제를 꿈꾸기도 했었다. 형의 죽음과 민주화항쟁의 한계로 인해 절망하던 때, 우연히 제 3세계의 어느 신부님이 탱크와 맞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았다. 충격이었다. '탱크에 맞설 수 있는 저 엄청난 힘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결론은 인간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사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닌 그였기에 주변의 심한 반대를 겪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정치인이 되어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그가 존재하게 되었으리라.

어릴 적 부모님이 사주신 세계문학전집을 차례차례 읽다가 책에 매료되어 결국은 책 박사가 되고 말았다는 김재운 의원. 그는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 책 속에서 발견한 길을 직접 밟아보고 또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길에 동참시키겠다고 말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까지의 정치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김 의원에게 조용히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꺾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책 전도사 김재운 의원, 오늘도 그는 그의 길을 혼자서 가고 있다. 🐾

